깡깡이 예술마을
근대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KANGKANGEE Arts Village

萬 事 大 平

만사대평

2019년
3월호

ⓒ 김주찬 작가, 이미지 노마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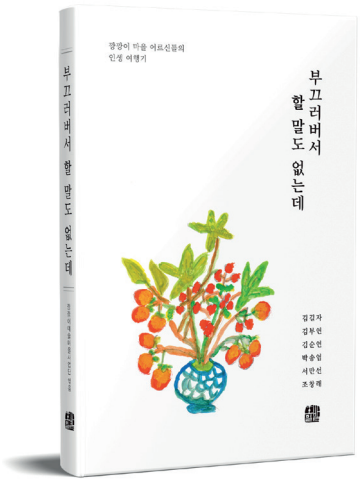
깡깡이 신간소개	3	자서전<부끄러버서 할 말도 없는데>
이달의 이야기(1)	4	예술가의 밥상 5회차 북콘서트
이달의 이야기(2)	6	영도 문화-도시-재생 콜로키움 '재생, 예술, 커뮤니티'
이달의 이야기(3)	8	오픈팩토리, 비밀의 공장 문이 열리다
깡깡이 오늘은(1)	11	(사)대평동마을회 정기총회
깡깡이 오늘은(2)	12	2019 남항터울림 지신밟기. 공동체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독자기고	14	겨울 새벽
칭찬합니다	15	영도 하나회 회원 한진호 님
이달의 건강상식	15	요즘 유행하는 홍역 알아보기

자서전
〈부끄러버서 할 말도 없는데〉

”아이고, 뭘 또 자꾸 쓰라고 하노. 뭐 쓰자고 들면 쓸 끼야 많지만,
그기 뭐 대단한 기라꼬.“ (김부연, 77세)

”나같이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이 부끄러바서
어째 이런 글을 써서 내놓겠습니까.“ (조창래, 74세)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면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이래 행복한 일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김길자, 76세)



지난해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마다 깡깡이 예술마을사업단 사무실에는 여섯 분의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기 위하여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연필을 쥐고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글을 써 내려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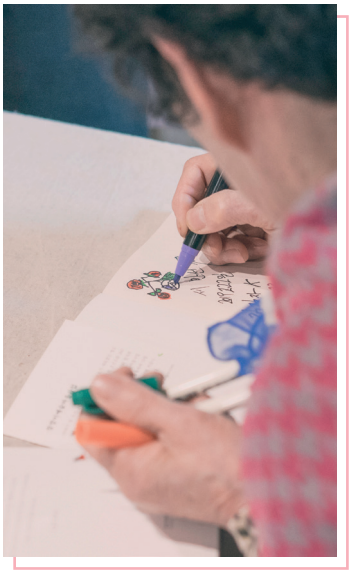
정우련 소설가의 지도로 다듬어진 글 99편과 시화동아리를 통해 만들어진 시화 22점을 엮어 발간된 책 “부끄러버서 할 말도 없는데”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 참전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인생 이야기가 덤덤하고도 소탈하게 담겨 있습니다. 깡깡이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통해 깡깡이 마을의 지난 기억과 역사 그리고 그곳을 관통하여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여행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글. 이혜미(플랜비협동조합)

예술가의 밥상 5회차 북콘서트

이달의 이야기(1)

지난 2월 22일 금요일.
다섯 번째 예술가의 밥상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만의 자서전쓰기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인 자서전 '부끄러버서 할 말도 없는데'와 깡깡이예술마을 곳곳의 기술자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업사 단행본 '대평동 공업사를 만나다' 발행 기념과 연계하여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서전 저자분들은 게스트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마을다방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처음 보시는 거라 한껏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데 괜찮을까 자서전을 쓰면서 걱정이 많으셨던 저자분들은 책을 보며 많은 생각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던 공동체 부엌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음식을 이전과는 달리 식사가 아

니라 간단하고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떡국 떡을 이용한 궁중떡볶이와 팥이 들어간 찹쌀파이, 유자청 드레싱을 뿌린 돌나물 샐러드,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로 봄철 과일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단연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팥 찹쌀파이였습니다. 견과류를 섞어 고소하고 오븐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안은 빵처럼 촉촉한 파이라 남녀노소 오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깡깡이' 책의 저자인 한정기 작가님의 사회로 자서전 동아리를 이끌어주셨던 정우련 작가님과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곡두의 공연으로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식사까지 일사천리로 준비하여 마지막 예술가의 밥상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사담의 조세빈 대표님, 정금자 통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때마다 두 손 걷고 도와주신 마을 분들까지 점점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준비를 했던 지난 행사를 돌아보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음식으로 찾아뵈었던 예술가의 밥상 행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글. 김슬기

영도 문화-도시-재생 콜로키움 ‘재생, 예술, 커뮤니티’

이달의 이야기(2)

1월의 마지막 금요일, 깡깡이예술마을에서는 하루 종일 ‘콜로키움’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가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깡깡이생활문화센터 앞에는 ‘2019 영도 문화-도시-재생 ‘콜로키움’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문화도, 도시도, 재생이라는 단어도 어렵긴 해도 한번쯤 들어본 단어인데 ‘콜로키움’이라니, 입 안에서 발음해보아도 영 낯설게 느껴집니다. 콜로키움에 참여하신 분들 중 여럿이 인터넷 검색창에 ‘콜로키움’을 검색해 보셨다고 전해주셨는데, 콜로키움(Colloquium)은 라틴어로 모여서 말하고, 함께 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에서는 발표자가 발표를 한 후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론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펼쳐진 콜로키움 전 오전 시간에는 깡깡이예술마을 일대를 도는 ‘팸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팸투어(FAM tour)는 사전답사여행으로 볼 수 있는데 낯선 단어들이 많이 쓰여 어려워 보이는 행사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팸투어에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려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팸투어 신청문의는 당일 아침까지 이어져 담당자가 진땀을 흘리기도 했고, 대평마을다방에는 오픈 역사상 최다 인원인 100명이 모여 전날부터 영도에 있는 의자들을 모두 마을다방에 모았음에도 강의 중반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기도 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2018년 마을동아리, 예술가의 밥상 등의 사업을 진행했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며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에서는 영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키워드들인 ‘재생, 예술, 커뮤니티’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자의 유려한 진행과 함께 시작된 콜로키움은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의 쟁쟁한 기조발제로 최근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초량1925의 기획자인 창파 실험실 씨 디렉터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홍순연 삼진이음 이사, 이승욱 깡깡이예술마을 총감독의 주제강의는 앞선 기조발제에서 이야기한 담론들을 실제 눈에 보이는 사례로 소개하며 도시재생과 예술, 커뮤니티를 실제로 어떻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콜로키움의 말뜻이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이기에, 조금 더 깊고 진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강의 이후 분반을 나누어 강연자들과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분반별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문화와 도시, 재생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분들부터 대학생, 예술가, 마을활동가,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문화행정가, 정책연구자까지 다양한 층위와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이후에 마련하기로 약속드리며 콜로키움을 마무리 했습니다.

콜로키움을 준비했던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해 더 열심히 준비했던 행사였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공예술이나 커뮤니티, 문화도시 같은 낯설고 어려운 개념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더 확장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살아나고, 아름다워지면 좋겠습니다.

글. 최예송(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프로듀서)

오픈팩토리,
비밀의 공장 문이 열리다

이달의 이야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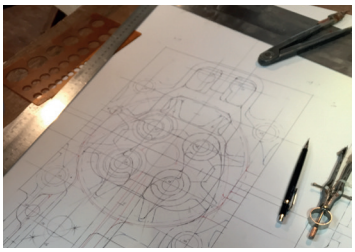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선박부품을 만드는 공업사를 둘러보는 새로운 투어 **<오픈팩토리, 비밀의 공장 문이 열리다>**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봄기운이 느껴지는 따뜻한 볕 아래 진짜 마을의 기술자처럼 "안전제일"이 돋보이는 작업복을 입고 파란 안전모를 쓰고 투어 참여자들은 마을 곳곳의 선박부품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깡깡이 안내센터에서 신기한 선박체험관을 관람하며 선박에 대한 구조와 부품들을 미리 알아보고 총 4곳의 공업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배의 프로펠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경진스크류**"입니다. 프로펠러는 비행기나 선박에서 엔진의 회전력을 추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관례적으로 선박용 추진기관은 프로펠러라는 명칭보다는 "스크류"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바람개비를 연상하는 부품은 선박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작업 중인 스크류를 손으로 만져보고 기술자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술자의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신성정밀**”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및 선박 엔진 부품 등을 만드는 곳으로 공장 내부에는 다양한 부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이곳에선 실제 기술자처럼 다양한 포즈로 삼삼오오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깡깡이마을 터줏대감으로 영도구 최초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한국밸브상사**”입니다. 이곳에선 사장님이 직접 조립한 밸브관을 보여주시며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의 답을 맞추기 위한 손짓과 함성으로 한바탕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입구를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부의 크기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마치 밸브 미로에 갇힌 것처럼 선박 안전에 중요한 각종 밸브와 선박 수리에 필요한 부품 약 5천개가
질서정연하게 사장님의 손길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업사는 “**진영목형**”으로 선박부품 제작의 기본이 되는 나무모형을 만드는 곳입니다. 기술자분의 안내로 직접 사포질 체험을 하며 설계부터 실제 완성품이 제작되는 전체의 작업공정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유의 나무향이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워 삼림욕을 하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4군데의 공업사를 지나 마무리는 생활문화센터로 돌아와 투어 내내 찍은 사진을 한데 모아 베스트사진을 투표하여 마을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평동 선박부품공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대평동 공업사를 만나다” 책을 보며 방문하지 못한 여러 곳의 공업사를 살펴보며 짧고도 길었던 투어가 종료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기술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신기한 공장 내부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오픈팩토리> 공업사 투어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3월에도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진행 및 문의 : 주식회사 핑크로더 051)254-2420

글. 김 설

(사)대평동마을회 정기총회

2019년 2월 20일 오전 10시,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대평커뮤니티홀에서 사단법인 대평동마을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2018년 한해 예·결산을 보고하고 2019년 예산 및 활동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는 박대수 前 대평동마을회장, 홍삼만 現 대평노인회장, 이영완 現 대평동마을회장, 박영희 남항동장을 비롯해 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법인정관 변경과 등기(정관변경)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으며, 법무사의 동석 하에 회원분들로부터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날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2019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변경된 정관은 2월 22일 등기를 마무리했다.

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2019 남항터울림 지신밟기.
공동체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부산시 영도구 남항터울림 풍물단(단장 김철호)은 황금돼지 기해년을 맞아지난 2.11일부터 2.13일까지 3일간 한해 마을의 안녕과 주민화합을 기원하는 「2019.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했다. 남항동 8개 유관단체와 남항동 주민자치회 사물놀이 강좌 수강생 등이 참여하는 풍물패로 구성된 '남항터울림 풍물단'은 2016년부터 매년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마을축제로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해 왔다.

첫날 오전, 남항동 행정복지센터(과거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마을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복 기원제를 시작으로 관내 영도대교, 대평동 깡깡이마을, 남항시장, 전차종점 등 주요 지역과 거리 곳곳에서의 길놀이와 함께 가정, 기업체 200여개소를 방문하여 고사소리와 풍물놀이, 춤으로 지신을 밟으며 한마음으로 마을과 가정, 사업장의 평안과 번창을 빌었다. 지신밟기 참여업체 및 가정에는 감사문과 함께 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복조리가 함께 전달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영도의 관문인 영도대교를 통해 좋은 기운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기원코자 도개에 맞춰 대교 위에서 개최한 지신밟기 행사는 참여자에게는 지역 애향심 및 공동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개 관람객에게는 새해 정초 문화행사로 흥겨운 볼거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행정복지센터 발복기원제

영도대교 위 공연

영도대교 단체사진

남항시장 길놀이 공연

김철호 단장은 “지신밟기 행사는 각 집, 사업장, 거리 등 마을 전체가 축제의 공간이 되어 이웃 간 서로를 알게 되고 풍물놀이 참여자도, 구경꾼도 함께 흥겨워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문화행사임과 동시에 각 가정, 사업장에서 내어 놓은 쌀이나 돈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의 활동비를 분담하는 주민자치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라고 전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 새해를 맞이하여

남항터울림 지신밟기 행사를 보면서 좋은 일에 함께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집터와 가정을 지켜주는 지신에게 땅을 밟으면서
악귀와 잡신을 쫓고 복을 부르는 전통의례라고 합니다.
지신밟기를 함께 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모두들 한결같이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깡깡 두드리는 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 행복한 소리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드렸으면 합니다.
행복한 한해가 되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글. 남항주민센터 김태현, 이은미 주민기자 **사진.** 김주찬 작가, 이미지노마드

독자기고

겨울 새벽

글. 최언석

* 이 글은 대평동에 사시는 통선선장님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헐거워진
문풍지 사이를 파고드는
한기에 호롱불이 흔들 거린다...

불꺼진 방안
역으로
창문에 비친 달빛 실루엣...

차가운 달빛은 토담을
넘지 못하고
반은 담의 그림자를 담고...

그 위로 겨울에 수척해진
늙은 감나무 가지가 흙담에 기대여
바람에 우는 밤이다...

쇠죽 끓이는 방에는
서로 발보고
얼기설기 고만고만 아이 많은 집...

군불에 넣어둔
고구마 익기를 기다리다 깜박 잠들고...

머리맡 고구마 짚 뒤주 속에 귀뚜라미와
등 굽은 할미의 애끓는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밤을 지새우고...

간간히 화로에 담뱃재 터는 소리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여 꿈과 생을 넘나들고...

긴 겨울 고구마는 타버렸고
새벽 구들방은 식었지만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폈고 꿈은 익어 갔다...

미명엔 아부지 헛기침 소리에
들짐승 혼비백산 달아나고...

타닥타닥 콩깍지 태워
쇠죽과 세숫물
같이 데워지고 등짝도 따뜻해졌다...

엄마는 하얀 머리 수건으로 똬리 틀어
물동이 이고
독에 가득 채워 놓으시고...

샤근샤근 박 바가지에
쌀 씻는 소리가
무한 행복하게 했던 겨울 새벽이다...

칭찬합니다

영도 하나회 회원 한진호 님

글. 이종렬 주민기자

백두봉 낙지 황도경 대표님께서 영도 하나회 회원 한진호 님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진호 대표는 영도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모인인 영도 하나회 회원으로 우정을 쌓던 중 우리도 뜻깊은 일을 해보자는 회원들의 의견이 나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인 도배, 장판, 전기수리 등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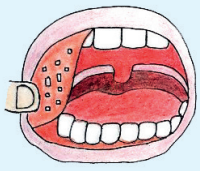
먼저, 대평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도 확인하고, 평소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주고, 쓰레기 청소 등 깨끗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하우스 제2호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영도 하나회를 응원하며 한진호 님을 칭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달의 건강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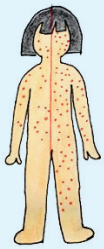
요즘 유행하는 홍역 알아보기

①

- 홍역은 **건조한 계절**과 관계가 있으며 주로 **늦은 봄철이나 초 겨울**에 발생함.
- **2~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임.
- **원인균 :** 홍역 바이러스
- **감염경로 :** 환자의 재채기나 호흡기 분비물, 콧물에 직접 접촉
- **주요 증상 :** 38℃ 이상 발열, 결막염, 입 안 점막에 반점, 발진



입안 점막에 반점



발진 1일째 발진 3일째

예방대책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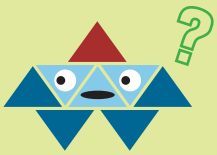
1) 접촉을 피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밀폐된 장소, 유행시 외출을 삼간다.)

2) 개인 위생 관리 (외출 후 양치질, 식사 전, 용변 후 꼭 손 씻기)

3) 저항력 강화 (과로하지 않고 매일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영양 섭취, 휴식)

4) 홍역 예방접종

퀴즈대평!



지난 2월 23일 저희 마을만의 독특한 투어 프로그램인 작업복을 입고 공업사를 4군데를 돌아보며 사진도 찍고 기술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오픈팩토리 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픈팩토리 데이에 둘러본 공업사들 중 "신성정밀"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것과 선박 엔진 부품 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 답 : (　　)

정답을 맞힌 선착순 세 분을 뽑아 깡깡이예술마을의 기념품 패키지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퀴즈의 정답을 작성하여 깡깡이 안내센터로 방문해주세요.)

기사, 기자를 모집합니다

·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
·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이 있으셨던 대평동 주민분
·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

생활지면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결혼 축하, 돌 기념, 고희 기념, 업체 광고 등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 신문을 통해 전해 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 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051-418-1863
이메일: ydart2016@hanmail.net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8-8,
2층생활문화센터 ydart2016@hanmail.net

발행처: 영도문화원

편집인: 하은지, 김슬기

주민기자: 이종렬, 이은미

디자인: STORYMERGE Design

발행일: 2019년 3월

* 「만사대평」은 2018 산업관광 육성 사업 2차(깡깡이 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